

# 도, 도정운영 추진상황 공유·소통

## 2월 소통의 날 행사서... 김관영 도지사, "도정 성공 위해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해야" 이현주 연세대 교수 초청...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갑질 예방 심리학' 주제로 열린 강의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19일 도청에서 열린 2월 소통의 날 행사에서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도정의 성공을 위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900여 명의 도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피켓 퍼포먼스와 김 지사의 소통 시간이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이현주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 연구교수의 초청 특강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이보다 더할 순 없다' 싶을 정도로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이유와 개최

방향을 알리기 위해 직원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격려하며, "이제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도정이 성공하려면 조직이 건강해야 한다"며,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이현주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교수가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갑질 예방 심리학"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의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해 상처받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라며, "이것이 바로 의사소통의 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마다 의사소통 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이해하고 조정하는 것이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회유형은 타인의 비유를 맞추려 하고, 비난형은 독선적이며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며, "조이성형은 감정을 드러내기 두려워하고, 산만형은 의사소통을 방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좋은 사람은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감정을 존중하는 일치형 이라"며,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매월 소통의 날 행사를 통해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분야별 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1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명장에서 열린 2월 소통의 날 행사에 김관영 도지사와 송상재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 새만금 세계농업대학 설립 위해 '머리 맞대'

## 원광대와 전략토론회 개최... 설립 방안·발전 전략 등 논의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와 함께 19일 새만금 세계농업대학 설립을 위한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으며, 글로벌 농생명 분야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원광대학교와 협력을 통해 새만금 세계농업대학의 설립 방안과 발전 전략을 논의하며 상생과 협력을 모색했다. 원광대학교는 교육부 주관의 2024년 도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최대 2,545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원광대학교는 글로벌대학 실행계획에 따라 세계농업대학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협력할 계획이다. 새만금 세계농업대학은 네덜란드의 와게닝겐 대학을 모범으로 삼아 '농생명 산업의 글로벌 거점 캠퍼스'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원광대학교는 새만금 3대 허브(관광·마이스(MICE), 글로벌 푸드 허브, 첨단전략산업)와 협력하여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관광·마이스(MICE) 산업과 연계하여 새만금 스마트 진로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연구·실증·생산 가능

의 클러스터(협력 지구)를 형성하여 글로벌 푸드허브와 첨단전략산업의 가치를 높일 전망이다.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 세계농업대학 설립을 위한 전략수립을 통해 새만금이 농업교육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만금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태 총장은 "새만금의 자원과 본교의 역량을 결합해 생명산업의 글로벌 거점이 새만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해 제시되는 2050년 전략목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추경편성에 정치적 이권 배제, 민생안정 위해 힘 모아야"

## 한국종합농업인단체협의회

한국종합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최홍식 상임대표)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신속히 논의해 농경·농촌 현장의 민생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홍식 대표는 "오는 20일 여야정이 국정협의회 개최에 합의하며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한 농촌 현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연초 예산 부족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 방식을 선착순에서 선별로 변경했다가 논란을 겪었던 만큼, 농식품 정책사업에 예산의 추가 확보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무산된 △무기질비료 가격 보价的 수급안정 △사료구매자금(이차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등 주요 농가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 농가당 연간 농업경영비는 2,678만 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22.4% 증가했다. 이 중 사료비(20.4%), 비료비(6.2%), 광열비(5.8%)가 각각 40.4%, 41.3%, 72.9% 상승하며 생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농업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기질비료의 경우 올해 가격보조수혜 농업인이 94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지원이 중단될 경우 농업인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지난해 말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별 제도가 종료된 가운데,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예산 확보가 무산되면서 일부 도축장이 도축수수료 인상에 나서고 있어 축산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 현장에서는 연초부터 추경 편성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만호 기자

하지만 양당이 최근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으나, 지역화해 등 정책 사업이 포함돼 있어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한국종합농업인단체협의회는 "추경이 민생안정이라는 본래 목적보다 정당별 중도층 포섭 공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추경 편성 시 적자 국제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속한 타협을 위해서는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지난해 증액이 추진됐던 주요 민생사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과 몇 주 후면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는 만큼 농가경제 구제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는 "추경이 끝까지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면, 농업인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 책임을 분명히 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만호 기자

# 도,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안내

## 내달 1일 ~ 4월 30일 접수

전북자치도는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신청접수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24년 임업 직불금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1,894명의 임업인에게 총 43억1,133만원이 지급됐다. 이 중 면적 직불금 27억5,650만원, 육림업 직불금 10억5,611만원, 겸업 직불금 4억 5,991만원, 소규모 임가 직불금 3,800만원이 포함된다.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은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작전 1년 이상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격이 주어진다.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작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작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이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o.go.kr)'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4월 1~30일까지 산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산림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영중운영)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만호 기자

# 올해는 전북특별법 실행 원년

## 도, 특례 실행 추진계획 보고회 열고 추진상황 등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을 전북특별법의 실질적 실행 원년으로 삼고, 특례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작년 12월 27일 시행된 전북특별법의 131개 조문과 76개 특례 중, 실행 준비가 완료된 53개 특례를 본격 추진하고, 올해 이후 시행 목표인 22개 특례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19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특례 관련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특례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전북자치도는 즉시 시행된 53개 특례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이미 후보지구 선정을 마친 지구·특구 지정 특례는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농생명산업지구의 경우 올해 6월경, △남원 ECO 스마트팜산업지구 △진안 홍삼한방산업지구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 산업지구 등 3곳의 지구 지정을 목표로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협의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농업생산에 그쳤던 지역을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과 기업 집

적화를 통해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을 구축한 지역 농업분야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례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컨설팅과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매월 추진 점검회의를 열어 연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전북 특별법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추가 특례를 대상으로 기본 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신규 특례 발굴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례 및 규제 완화가 지역발전 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했다. △지방분권·자치권 강화 △생명경제 거점성장 △도민 행복 증진 등 3대 목표와 30개 세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분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 정책 효과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올해는 전북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는 해로,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에 집중해 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해양수산 시책설명회 개최

## 지속 가능한 수산업 육성 및 창업·투자 활성화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어업인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해양수산 시책설명회'를 19일 전북바이오통합산업진흥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도와 시군 관계자, 어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2024년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 신규 시책 및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2024년에는 △지역특화 수산물 육성 기반 마련 △글로벌 불류거점 항만 육성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등을 핵심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중앙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선정 성과를 거뒀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업 발전 방향을 재점검하고, 2025년 신규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어, 2025년에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시책으로는 △전북형 청년 어촌정착 지원 △대체 양식품종 시범양식 △토하 전처리·유통시설



기반 조성이 포함되며, 지역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전북해양수산창업투자센터의 주요 사업과 지원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해양수산분야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맞춤형 창업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투자 연계 프로그램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어업인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설명회에서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드백을 수렴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 임실, 'K-치즈' 중심지로 키운다

## 동부권 식품산업 자문단 회의... '치즈·낙농 산업지구 조성' 논의

전북자치도가 임실 치즈·낙농산업을 고도화하고, 동부권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일 '찾아가는 동부권 식품산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전북연구원, 전북바이오통합산업진흥원, 한국저지농연구회, 국립축산과학원 등 식품·낙농산업 분야 전문가들과 전북자치도 및 임실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임실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치즈 산업의 중심지로,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특성을 살린 프리미엄 유제품 산업 육성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

히, 저지종 젖소를 활용한 고품질 치즈 및 유제품 생산,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 지속가능한 낙농업 모델 구축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낙농업 차별화 전략, 지역 특산 치즈 브랜드화, 지속 가능한 축산인 기반 조성 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펼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도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임실N치즈 브랜드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전북을 대한민국 치즈·낙농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외국인 유학생 협의회 개최

'전북 외국인 유학생 10,000명 시대'를 맞아,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대식)이 유학생 정착지원을 위해 도내 12개 대학과 머리를 맞댔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전북 외국인 유학생 협의회'를 19일 열어 유학생 정착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와 공동 사업을 논의했다. 전북 지역 12개 대학이 참여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정주 유도'와 '협력'이 강조되었는데, 이러한 목표를 실질적

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북 탐방 프로그램 △취업 역량강화 캠프 △행정서비스 지원 같은 사업 주제가 논의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진흥원이 중심이고 공동프로그램을 운영 예정이다. 특히, 도 교육협력추진단과 창업지원과에서도 참석해 지역-대학 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비수도권 최초로 전북에 세워지는 '글로벌창업인민센터'의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보도 공유했다. /이만호 기자